

일 주 문

제5차 회임21 천도법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29일 합천 해인사 제5차 회임21 천도법회에서 법문한다.

석가모니가사 친견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상 스님은 10월 20-23일 통도사 석보박물관에서 부처님과 자장유사 친작가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자녀소통 인성 교육
공주 마곡사 주지 성담 스님은 10월 21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자녀소통 인성교육 '아빠, 내마음을 알려주세요'를 개최한다.

선묵역 연수회 개최
풍경소리 대표이사 해사 스님은 10월 20일 충주 선묵원에서 연수회를 실시한다.

지구촌이동 위한 나눔 콘서트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10월 16일~23일 조계사와 함께 지구촌 빈곤아동을 위한 문화제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연다.

삼존불 점안법회
광주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은 10월 20일 용문사 대웅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62)531-3888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개강
윤여준 평화교육 원장은 10월 19일부터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평화재단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일타문도회 "돈관 스님 주지 재추대"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0월25일 예정된 가운데 일타문도회가 현 주지 돈관 스님의 재추대를 결의했다.

장작·떡조 스님 등 동곡일타문도회 손상좌 대표 10명은 10월 12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은 본사주지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승가공동체 회복을 구현시키고자 지난 중회에서 산중총회법을 개정했다"며 "이에 은해사 동곡일타 손상좌 일동은 산중총회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현 주지 돈관 스님을 합의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가불자회 활성화에 매진할 터”

제 27대 인천불교총연합회
신임 회장 덕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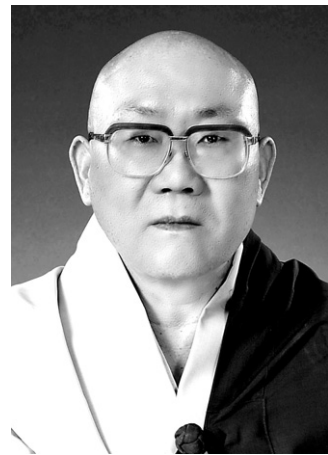
“인천지역 28개 종단의 화합을 통해 수도권의 관문 인천에서 부처님 법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인천불교계를 이끌 새 수장이 선출됐다. 인천불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흥선, 능인사 주지)는 10월 10일 인천 송의가든에서 제 27대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천태종 황통사 주지 덕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 무엇보다 인천불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라며 “인천 전 지역 사암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재가불자로 구성된 총연합회 임원진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성공 개최에 인천불교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인천시는 재정난에 봉착한 상황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종교계, 시민사회를 축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덕해 스님은 “2013년 인천아시안불교대회와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불교홍보관을 운용해 활발한 포교활동에 나서겠다”며 “500만의 관문인 인천에서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타종교에 비해 인천 불교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덕해 스님은 “신도 모임인 재가불자회 활성화와 함께 사회단체 연계 등을 모색해 인천불교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종교간 갈등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교류를 넓혀 인천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의차 보급에 앞장 서겠다”

용운 스님 차명인 선정



“초의 선차에는 인류정신문화의 정수가 담겨있습니다.”
40년간 한국 차 문화 운동을 펼친 용운 스님(사진)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스님을 ‘초의차·초의병차’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차문화를 이끌어온 초의선사의 제다법을 계승해 초의차와 초의병차 제조를 전수받아 계승·발전시켜왔다.
용운 스님은 “초의 선차를 통한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겠

다”고 밝혔다.
스님은 1980년 초의선사의 차와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초의선사 헌다제를 봉행했으며, 1981년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언론연구원 등에서 한국전통차와 사상에 대한 강의를 했다. 국내서 초의차, 초의병차 보급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1989년 차문화 잡지인 월간 <다담(茶談)>을 발행 우리나라 일반 대중과 애호가들에게 차에 관한 전문지식과 차문화·정신을 보급해 왔다. 2009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세계녹차컨테스트에서 초의차로 최고 금상, 2010년에는 초의병차로 금상을 수상해 한국 전통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초의차 행다법 시연과 초의차 무료시음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또한 G20정상회의 때는 ‘한국다도의 날’을 정해 ‘TEA-ART 대전’을 직접 주관 전통다도 시연과 전통 초의차 무료시음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일 우호 증진위해 기증”

도요카 노부타카 화백, 유물 158점 기증



“일본화는 한국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 모은 한국화를 이제 한국에 돌려드립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일본 전통화가 오카 노부타카 화백(사진)이 한·일 우호증진을 위해 평생동안 모아 온 한국 유물을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해 화제다.
동국대는 오카 노부타카 화백이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12층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 ‘한국·왕궁의 사계-미의 원류를 찾아서’ 첫

날인 10월 10일 평생 모아온 한국 유물 158점을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오카 노부타카 화백은 일본 전통화가로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각지 박물관에 유물 기증 공로로 2000년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사중 하나인 감수포장(紺綬褒章)을 수상한 바 있다.
오카 노부타카 화백은 “한·일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평생을 모아 온 한국 유물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2013년에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카 화백은 “한일 문화는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양국 국민들이 소중히 생각하며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은 “민간차원에서 일본인이 대학 박물관에 기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잠시 경직된 한일 관계에도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비 모아 승려복지기금 기탁

원로의장 종산 스님, 1천만원 쾌척 ‘자비행’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10월 11일 승려복지기금으로 1천만원을 충무원에 기탁했다.
스님은 이번 기금 기탁은 의장 재직 중 여러 스님들이 병원비로 보내준 보시금을 모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종산 스님은 “여러 스님들의 도움이 있어 건강이 빨리 회복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정진하고 있다”며 “그간의 마음의 빛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대 화합한마당 펼쳐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10월 11일 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직원, 외국인 학생 등 500여명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개교 10주년 금강인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를 펼쳤다.
이날 열린 화합 한마당에서는 학과별 학생, 외국인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조를 이뤄 줄다리기, 축구, 농구, 족구, 피구, 계주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종정협, 대전회관 현판식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대전회관을 매입하고 10월 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회장 월인 스님을 비롯해 회원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동 동부상가 맨션 2층 216 - 1호에 소재하고 있다.

유홍준 교수, 시민 대상 미술사 강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10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 미술사 강의’를 진행한다.
유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보물과 유물의 제작 배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얽힌 일화를 통해 한국 미술사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범어사 개산 1334주년 선문찰요 달마대사 "혈맥론" 대법회
범어사에는 유형문화재 29호 "선문찰요책판"이 있습니다. 금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100년만에 간행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혈맥론 강의 대선지식이신 범어사 조실 지유대선사를 모시고 선문찰요 혈맥론 대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법사 지유 대선사(범어사 조실)
일시: 불기2556년 10월 19일(금)~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범어사 대웅전 및 보제루
내용: 선문찰요 법회 입제 및 봉정식, 선문찰요 혈맥론 법회, 개산대재 및 정대불사
법회 동참금: 5만원(교계제공)
선문찰요(영인본): 150,000원
문의 및 접수: 범어사 원주실 051)508-3636